



과천 인구변화 그리고 미래

사용설명서

과천도시공사 미래전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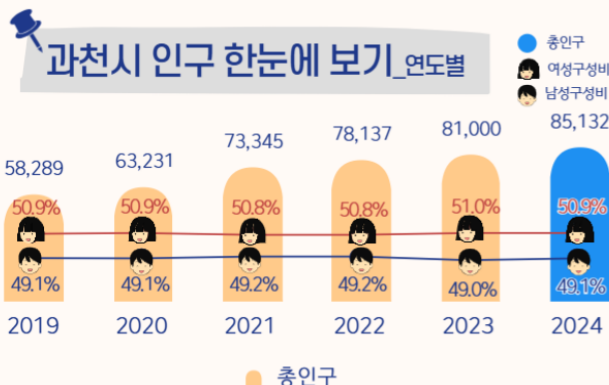
담당자 | 김혜경

☎ 02-500-1222

01 과천인구 한눈에 보기_연도별

■ 총인구 증가와 도시의 외형적 성장

과천시의 총인구는 2019년 58,289명에서 2024년 85,132명으로 약 46.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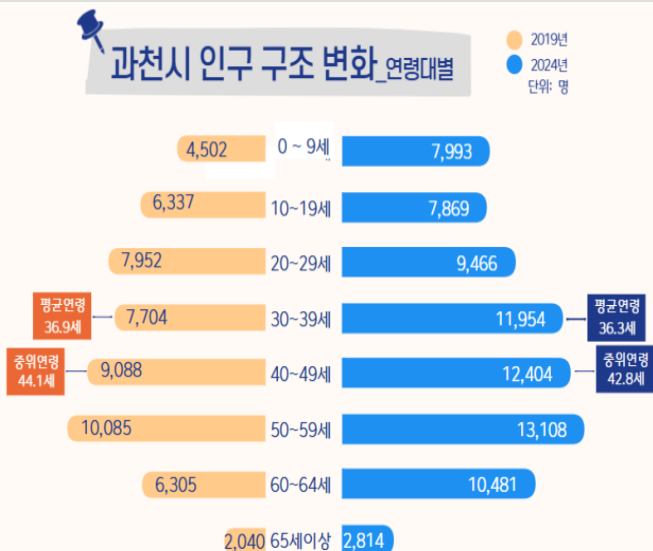


과천시의 총인구는 2019년 58,289명에서 2024년 85,132명으로 약 46.1% 증가했다. 특히, 2020년을 전후로 인구가 급증했는데, 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재건축아파트 입주 등 대규모 주거 공급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남녀 인구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기준 남성은 41,757명(49.1%), 여성은 43,755명(50.9%)으로 나타나 성별 구성비는 균형적이며, 남녀 모두 고르게 유입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02 과천시 인구 구조 변화_연령대별

■ 30~39세 연령층의 2019년 7,704명에서 2023년 11,954명으로 55.2%로 폭발적 증가세

60~64세 인구는 6,305명에서 10,481명으로 66.2% 증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37.9% 증가



과천시 인구 증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30~39세 연령층의 폭발적인 유입이다. 이 연령층은 2019년 대비 2023년 55.2% 증가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과천으로 유입된 핵심 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30대 신혼부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 중심임을 시사한다. 또한 60~64세 인구는 6,305명에서 10,481명으로 66.2%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37.9% 증가하여 고령층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위연령은 2019년 대비 2023년 1.3세 하락, 평균연령은 0.6세 하락하였다. 평균연령의 하락 폭이 중위연령보다 작다는 점은 청년층의 유입이 전반적인 연령 구조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03 과천으로 이사온 사람 수 변화_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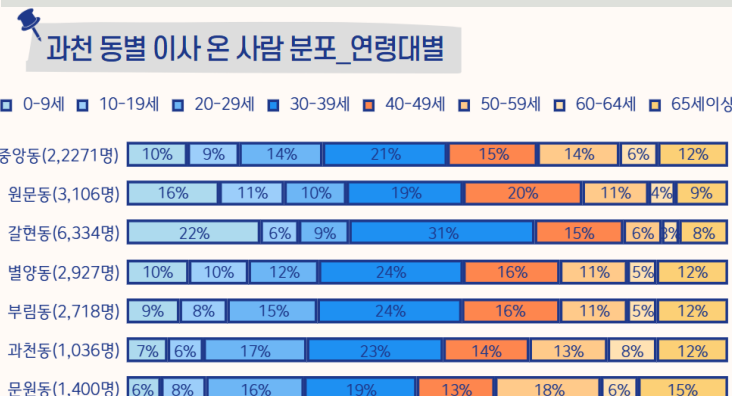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대는 0~9세로, 2019년 886명에서 2024년 2,438명으로 181.5% 증가
30~39세는 1,943명에서 4,307명으로 121.7% 증가, 40~49세 연령층도 115.2% 증가



과천시의 연령대별 전입자 수는 전 연령층에서 고른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30~39세 신혼부부 및 가족층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대는 0~9세로, 2019년 886명에서 2024년 2,438명으로 181.5% 증가하였다. 핵심 유입 세대인 30~39세는 1,943명에서 4,307명으로 121.7% 증가, 40~49세 연령층도 115.2% 증가해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60~69세 고령층은 575명에서 1,418명으로 146.6% 증가하였으며, 70~79세(113.7%), 80세 이상(118.4%) 고령층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9세 청년층은 57.3%의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04 과천시 동별 이사 온 사람 분포_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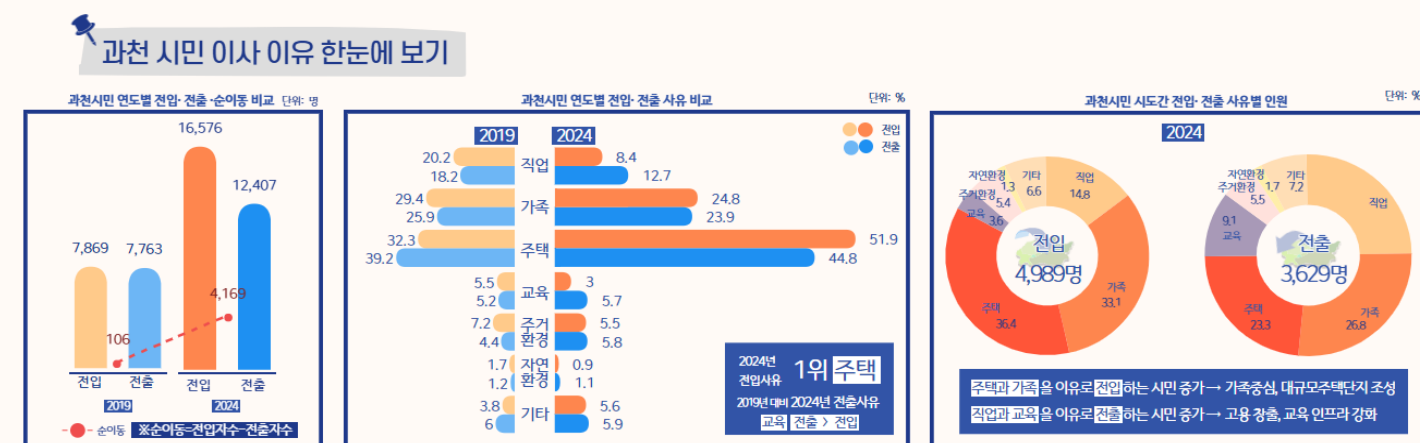
전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갈현동(6,334명)
30대 31%와 20대 22%의 비중이 높아 젊은층 유입이 활발



과천시에서 전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갈현동(6,334명)으로, 30대(31%)와 20대(22%)의 비중이 높아 젊은층 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원문동은 40대(20%)와 30대(19%)의 비율이 높고, 10~19세도(16%)로 나타나 자녀를 둔 중장년 가족층의 이주가 활발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별양동과 부림동은 두 30대 비중이 각각 24%로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중장년층의 정착지로 평가된다.

05 과천시민 이사 이유 한눈에 보기

2024년 기준 과천시의 순이동 인구는 4,169명 순유입
전입 사유 중 '주택' 3,039명, '가족' 1,139명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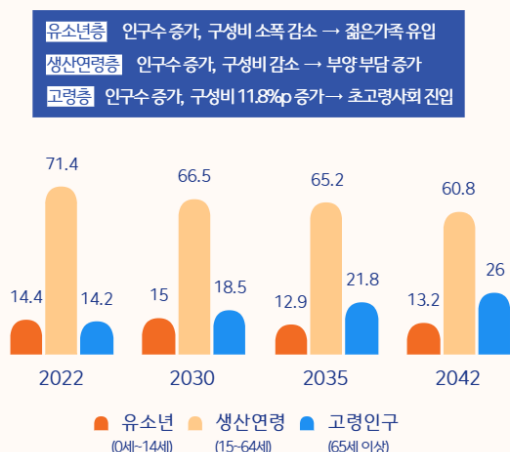
2024년 기준 과천시의 순이동 인구는 4,169명 순유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입 사유 중 ‘주택’ (3,039명)과 ‘가족’ (1,139명)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전체 전입자중 주택 사유는 51.9%에 달하며, 이는 지식정보타운 중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 효과로 해석된다. 2024년에는 전입자 대비 전출자 중 ‘교육’ 사유 전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며, 이는 과천시 교육 여건의 경쟁력 문제나 주변 지역으로의 교육 이전 현상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타’ 사유 비중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천시가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생활 인프라와 복합 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2024년 과천시 갈현동 전입 인구는 4,989명, 전출은 3,629명으로 1,360명 순이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2019년 대비 순이동 인구가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전입 요인 대부분이 가족, 주택, 교육 관련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 사유 전입도 21.8%증가, 전출은 68.6% 증가로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06 과천시 장래인구 구성비 변화

- 유소년인구(0~14세)는 2022년 대비 2042년에 37.6% 증가
과천시는 2035년에 고령사회(20% 이상), 2042년엔 초고령사회(28% 이상)에 진입할 전망

2022-2042 과천시 장래인구 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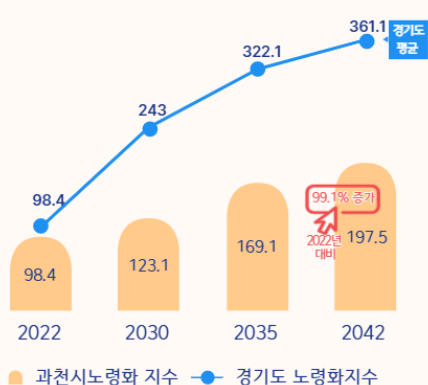
유소년인구(0~14세)는 2022년 대비 2042년에 37.6% 증가하며,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시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4.4%에서 13.2%로 감소, 이는 고령층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숫자는 증가하나 구성비는 71.4%에서 60.8%로 10.6%p 감소하여, 부양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2배 증가, 구성비는 14.2%에서 26%로 급증했다. 과천시는 2035년에 고령사회(20% 이상), 2042년엔 초고령사회(28%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경기도 전체에서 유소년층이 증가하는 지역은 과천과 양주 두 곳뿐이며, 다만 생산가능 인구의 구성비 하락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중장년층 비중 약화를 의미한다.

07 2022-2042 과천시 노령화지수 변화

- 과천시의 노령화지수는 2022년 98.4%에서 2042년 197.5%로 증가
2042년까지의 수치 변화는 단순한 고령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구조 전환 의미

2022-2042 과천시 노령화지수 변화

※ 노령화 지수: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



과천시의 노령화지수는 2022년 98.4%에서 2042년 197.5%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유소년 100명당 고령자 수가 1:1에 가까운 비율이나, 2042년까지 2배에 가까운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2022~2035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5년 이후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042년까지의 수치 변화는 단순한 고령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구조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은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고령자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08 2022-2042 과천시 부양비 변화

- 과천시의 총부양비는 2022년 40.0%에서 시작해 2042년에는 64.4%까지 상승 예상
'유소년 부양비'는 19.8% → 21.7%로 상승, '노년 부양비'는 20.2% → 42.8%로 급증



2022-2042 과천시 부양비 변화

단위: %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인구(유소년 및 고령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과천시의 총부양비는 2022년 40.0%에서 시작해 2042년에는 6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가 64.4명에 이르게 됨을 뜻하며, '유소년 부양비'는 2022년 19.8%에서 완만한 증가를 거쳐 2042년에는 21.7%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과천시로 전입하는 세대 중 자녀를 동반한 가구의 비율이 높은 점에 기인하며, 과천은 향후에도 유소년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노년 부양비'는 2022년에는 유소년 부양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42년에는 42.8%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총부양비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과천시의 고령 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고령사회로의 구조 전환을 의미한다.

과천돋보기 제48호 '과천인구변화 그리고 미래'는 [출처]의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원 자료에서 제시된 구분 항목을 준용하였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_주민등록인구통계
- KOSIS_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률
- KOSIS_시군구/전입사유별 이동자수
- MDIS_인구_국내인구이동통계_인구관련연간자료(2024)
- 경기통계_통계DB_통계별_장래인구추계(2022)